

군산,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사업비 38억원 확보... 전기이륜차 30대 및 전기화물차 5대 신규 보급

자립도시 군산시가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등과 관련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등 운행차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금번 정부추경에서 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는 최대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심공간을 위해 올 하반기 내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는 이동오염원으로써 국

내 미세먼지의 11% 정도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어 시는 노후경유차 1400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133대에 대해서도 매년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매연을 뿜어내는 오토바이로부터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전기이륜차 30대 및 전기화물차 5대도 신규로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 가을부터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가 운행제한 땀에 따라

본 사업을 확대하고자 정부추경 확보에 노력했으며 2억원의 예산으로 환경부 및 전라북도와 연계되는 단속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업체와 전라북도 환경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가을·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 2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노면 청소용 살수차를 운영하고, 관내 산업단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해 5천

만원 예산을 투입해 환경감시용 드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강임준 시장을 중심으로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관련 업무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가 관내 지역 대학 및 호텔과 미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미이스 프렌드리 업무협약

지역 대학·호텔과 협업체계 구축

익산시가 관내 지역 대학 및 호텔과 미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장 오석규), 전북대학교(수의과대학장 어성국), 웨스턴라이프호텔(대표이사 조관욱)과 미이스 프렌드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익산시 관내 미이스 관련 기관·단체와 미이스 프렌드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이스 유치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지속적인 미이스 유치를 위한 인력 양성에 기

여하고자 마련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미나, 학회 등을 익산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호텔은 미이스 산업, 관광의 수요창출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미이스 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여 익산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 및 호텔과 협력으로 각종 미이스 회의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에코윈,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투자 확정

수질정화제·악취저감제 등 신기술 친환경 업체 제4일반산업단지 6600㎡ 부지에 20여억원 투자

익산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태 익산시의회의장, 정금화 (주)에코윈 대표 및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주)에코윈은 2020년까지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6,600㎡ 부지에 20여억원을 투자하고 10

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업단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에코윈은 환경정화 부문에서 2년간의 연구에 의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수질정화제와 달리 첨가량의 조절만으로 즉시 정화가 가능한 친환경 초고속 응집정화

제와 천연 광물에서 미네랄을 용해·추출하여 버, 과수 등 농업용은 물론 수질정화, 화장품, 생수 등 산업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천연 미네랄 액상정화 제품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축적된 노하우와 연구개발로 환경사업 부문에서 우리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이번 투자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에코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을 시장, 농산어촌개발 내실있게 추진 강조

정현을 익산시장이 1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인력보강 및 콘텐츠 발굴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정현을 시장은 "최근 용동면과 춘포면 2개 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56억원을 확보했고, 현재는 총 17개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며 "이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구성 및 인력확보를 통해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백제왕궁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행사 성황리

가족 등 400팀 2000여명 참가

익산시는 지난 12일 백제왕궁 일원에서 열린 백제왕궁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올해로 3년째인 백제왕궁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행사는 해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모집정원이 다 채워질 정도로 지역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 친구들로 구성된 400팀 2000여 명이 한가위 전날 밤 설레는 마음을 담아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행사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소원을 적어 소원등에 부착하고, 퓨전 국악공연을



지난 12일 백제왕궁 일원에서 백제왕궁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행사가 열렸다.

감상하며 소원등이 날아오르기를 기대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의 발원문 낭독이 끝나고 일제히 날아오른 소원

등은 백제왕궁 밤하늘의 보름달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자아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복지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가스 사용세대의 LPG 가스 고부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폭을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법으로 정한 의무 사업이다. 올해 193세대, 내년에는 약 1,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0년 까지 총 4,900세대의 가스시설 교체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170개소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지역현안사업 해결 정부 특교세 확보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월명산 탐방로 정비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고 있다. 시는 '월명산 탐방로 정비' 사업 10억원 확보로 훼손된 산책로 정비 및 자생화 식재로 특색 있는 탐방로를 조성해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농마교 재가설 공사'는 8억원 확보로 그동안 E급 안전진단 결과로 통행이 금지된 농마교를 조속히 재가설해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반기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5억원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범외취약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지방재정확대 재정인센티브 1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2천백만원 등 올해 총 35억 7천 4백만원을 확보해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교부세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과 협업으로 얻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 정치권,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